



특별기획  
좌담

# 학교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 때 —

2006년 1월 26일(목) 오후 3시

— 곳 —

서울 서교동 세교연구소 회의실

— 참석자 —

서경은(서울 중앙여고, 사서교사)

염보영(김포 풍무중, 사서교사)

이강련(인천예고, 도서관 담당교사)

이선영(파주 청암초, 사서교사)

이성희(인천 예일고, 도서관 담당교사)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사회)





**한기호(사회)** \_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2003년 『청소년출판』이란 책을 낸 후, 교육계와 문화계 인사와 만나면서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란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2년 정도 일을 했지요. 그 일을 하면서 학교도서관의 중요성을 많이 깨달았어요. 좀 더 나아가서는 학교도서관 문제가 교육계나 출판계의 문제, 문화와 학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1만여 개 학교도서관에 다양하고 괜찮은 신간이 들어가는 구조만 만들어진다면, 양서가 꾸준히 발행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런 공적인 영역만 확보되면 그 자체로 기초학문과 기초예술의 발양에 큰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일선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선생님들께 학교도서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학교도서관 만들기: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 얘기부터 하죠.

**서경은** \_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1,200개 학교를 중점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수치상 계획은 맞춰지고 있어 2007년이 되면 6,000여 개의 학교가 그 혜택을 보게 되고 1학교 1도서관 설치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예상입니다.

어제 서울시 사서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해 미리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런 이야기가 대세(大勢)더군요. “선생님, 딱 얘기 할 것 없고요, 인력문제만 얘기하면 돼요.”(일동 웃음) 반면, 작년 11월경에 서울·경기·강원 지역 2005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 참석한 교육부 담당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자리에서 인력문제 얘긴 하지 말자. 딱 얘기만 하자.” 그래서 “아, 그 얘길 빼고 무슨 얘길 하느냐”고 교사들이 항의하기도 했지만요, 교육부 관료들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수치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숫자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실제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냐가 중요하죠.

**이성희** \_ 2002년에 발표된 활성화 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는 모두 네 가지인데요, 이렇습니다. ① 학교도서관 기본 시설 및 장서 확충, ②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강화, ③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 ④ 공공도서관 및 민간과의 협력 강화. 이 네 가지가 종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세 번째 항목인 ‘전담인력 배치 및 전문성 제고란 측면’에서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도서관, 학교 어디에 있나?

**사회** \_ 우리가 보통 학교도서관에 대해 논의할 때 시설·자료·사람, 이렇게 세 차원에서 살피는데요. 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저는 도서관을 별도의 건물에 화려하게 설치해놓고도 실패한 외국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달리 학생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하던데요. 일선 선생님들은 학교도서관의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선영 선생님부터 말씀해주시죠.

**이선영** \_ 우리 학교 도서관은 5층 끝에 있어요. 리모델링 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도서관을 중앙으로 옮기는 건데, 처음 학교를 지을 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중앙으로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학교는 아파트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교실 수가 모자라 증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도서관을 중앙에 두고 학급 수를 줄이기 어렵지요. 아이들을 안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도 5층에 있거든요. 사실 1층에 있는 아이들이 5층까지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많이 안타깝죠. 1층이나 2층에만 있더라도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여건은 될 텐데 말이죠. 우리 학교만이 겪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염보영** \_ 확실히 위치 문제가 중요하긴 해요. 학기 말마다 다독반(多讀班) 같은 것을 시상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도서관과 가장 가까운 반이 순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 아이들은 교실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오가며 들르는 거죠. 반면에 가장 끝, 대각선에 있는 반 아이들의 이용률은 확실히 떨어져요. 통계를 나오거든요. 우리 학교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5층에 있다가 3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사회** \_ 3층이면 중앙이니까 접근하기가 가장 좋겠네요?

**염보영** \_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 구석에 있는 반 아이들은 잘 못 오죠.

**이강련** \_ 학교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학교에서 제일 좋은 자리는 교무실 자리죠. 몇 년 전에 한 교장선생님은 도서관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서관 자리로는 교무실이 최적이네. 선생님들이 다 찬성을 하면 교무실을 내놓겠네.” 그런데 결국 못하셨어요. 사실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4층 구석으로 갔는데, 학급 수가 증설되면 빈 교실도 없고 하니까 원래 있던 자리로 쫓겨 가게 되는 거죠.

저는 관점을 좀 달리했으면 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 때는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나 진짜 많이 오게 하려면 점심시간뿐 아니라 방과 후에도 오게 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집에 가기 전에 오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가령 1층 중앙이나 정문 옆에 도서관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도서관 위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성희** \_ 말씀대로 학교에서 제일 좋은 위치는 교무실·행정실·교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면 급식소로 가는 길목도 좋고요. 그런데 신설 학교를 보면 거의 5층 꼭대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좀 여유가 되면 처음 지을 때부터 1층이나 2층 중앙에 위치하도록 설계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신설되는 모든 학교의 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가령 교실 세 칸 이상으로 하고, 위치도 정중앙 아니면 1~2층에 둔다는 식으로 제도화해놓으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이강련** \_ 20년 전에 퇴임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제강점기엔 도서관이 지금보다 더 좋았답니다. 그때에는 도서관이 주로 정문 옆에 별도의 건물로 있어서 오가며 책을 빌리기 쉬웠다는 거죠. 제가 전에 근무하던 곳에는 세 학교가 몰려 있었어요. 그런데 개별 학교가 각자 투자를 하잖아요?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엔 이용률도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학교마다 1억 원 이상을 들여서 꾸미는 규모라면, 세 학교를 묶어서 공공도서관 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도 된다는 거죠. 지금의 도서관은 수업시간 몇 시간 쓰고, 점심시간에만 이용하는데요, 그 점이 좀 많이 걸려요. 내내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가 아닌가 싶어요.

**사회** \_ 이혜화 선생님이라고 제 은사이신데요, 이분이 ㅇ고라는 신설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도서관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그것도 교실 반 칸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 자리를 물색해보았더니 가장 좋은 자리가 교무실 자리였다고 해요. 교실 세 칸을 뜯크기인 데다 별도로 냉난방이 되는 유일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설득해 다른 곳으로 내보냈다고 합니다. 도서관이 어디에 있든, 아무리 구석자리에 있더라도 볼 놨은 다 본다고들 말하는데요, 안 보려는 아이까지 보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그 이유였답니다. 그러려면 접근성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려면 도서관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야겠지요.

위치도 위치지만, 도서관에서 중요한 것으로 치자면 자료도 빠질 수 없을 텐데요. 제가 겪은 얘길 좀 해보죠. 제 딸이 서울 ㅇ고를 졸업했는데요, 그전에 제가 ㅇ고에 책을 수천 권 보내드린 바람에 ㅇ고에도 안 보낼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책 4,400권을 싣고 갔는데 3,000권의 책은 이미 도서관에 있더군요. 그런데 그중의 절반은 구 맞춤법으로 쓰인 책이더라고요. 그래도 ㅇ고라면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잘 나간다는 사람의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일 텐데, 집에 책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요.

참, 우리나라의 1인당 학교도서관 장서 수는 어떤가요?

## 장서의 수와 장서의 질

**서경은** \_ 지금 ㅇ고를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곳이에요. 2001년인가…… 정확한 때는 기억나지 않지만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가 사서교사들에게 의뢰를 해서 실사(實査)를 여러 번 나갔거든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그 학교가 도서관을 자주 옮기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율학습실이 필요하다 하면 도서관을 잘라요. 그리고 반(班)이 늘어났다 하면 도서관을 다른 데로 쫓아 보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겨 다니게 했죠. 그러니까 책을 사고 정리하는 일에는 손도 못 대보고 도서관을 그냥 끌고 다니기만도 바빴던 셈이죠. 그리고는 리모델링 지원금을 받을 때 사서교사를 채용하고, 받고 나면 사서교사를 두지 않는 식이에요. 그러다 정부에서 무슨 지원을 받을 일이 생기면 또 사서교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운영행태가 비단 그 학교만의 현상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장서 말씀을 하셨는데, OECD 기준으로는 최소 1인당 열 권이 넘어야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07년이 되면 열 권이 된다고 하더군요. 2002년인가 중국도서관협회 분들이 내한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국의 학교도서관은 1인당 장서가 30권이라더군요. 당시 우리는 다섯 권도 안됐거든요. 중국 특유의 '과장'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저는 열 권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수치는 채워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엔 그 열 권도 어떤 책 열 권이어야 하느냐가 문제겠죠. 결국 어떤 책으로 열 권 이상을 만드느냐가 관건일 테죠. 처음부터 제가 강하게 '사람문제'를 언급했는데, 또 언급할 수밖에 없네요.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장서의 수와 질이 한꺼번에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성희** \_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여덟 권 정도 되더라고요.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이 25.9권, 영국이 11.7권, 일본이 20권쯤 됩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약 3년 전부터 교육부가 학교 운영경상비의 5% 정도를 도서 구입비로 사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략 3~5%를 도서 구입에 사용하고 있어요. 사립은 모르겠지만, 공립의 경우는 의무사항이고 감사에서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지킨다고 봐야지요. 제가 있는 학교만 하더라도 내년에 완성학년이 되는데 도서 구입비가 1년간 1,5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이면 책을 2,000권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이걸 꾸준히 한다면 10년 후에는 어느 수준까지 이르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문제는 책의 질이겠죠. 어떤 좋은 책을 살 것인가가 문제인데,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이선영** \_ 1인당 몇 권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학생 수에 맞춰 열 권 이상을 갖추게 되면, 사실 도서관의 크기가 지금 정도로는 어려워요. 우리 학교는 학생 수가 1,3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열 권 이상을 채우려면 13,000권이 넘어야 하거든요. 지금 장서가 11,000권 정도 되는데, 지금도 서고가 모자랄 정도예요.

또 운영비 쪽에도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 후의 운영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하거든요. 학교 입장에서는 몇 년간 계속 도서관에만 투자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우니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고민이 생기기도 했어요. 서가도 사고, 도서 구입비로 3%를 책정하니까 너무 많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들도 하시죠. 경기도는 도서 구입비가 3%였고, 도서관 운영비가 1%였어요. 그런데 2006년엔 그 조항이 빠졌어요. 지금 다들 그 조항이 있다고 생각하시지만요, 그 조항이 빠졌다는 것을 숙지한 분들은 ‘줄여라’라고 하실 수 있죠.

우리 학교는 지금 1인당 8.7권 정도 되는데요. 만약 2,000명쯤 되는 학교가 열 권을 채운다면, 초등학교인데도 2만 권에 맞춰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서관도 상당히 커야 하고 담당인력도 많아야 하는 거죠.

**염보영** \_ 무슨 책으로 채우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이선영** \_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2005년에 산 책이 1,500권쯤 되는데, 워낙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출판되는 책들이 많으니까요.

**염보영** \_ 장서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서의 질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학교의 경우는 제가 없을 때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 담당하신 선생님이 수업과 담임도 맡으신 채 도서관 리모델링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가구 같은 눈에 잘 보이는 부분은 여기저기 견학도 다니시면서 설치했는데요, 정작 책을 살 때는 아까 말씀하신 8고의 목록을 받아서 2,000권을 채워 넣으셨더라고요. 갔더니 상당수의 책들이 중학생들이 읽을 만한 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서 수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 8고의 목록에 교육청이나 기타 ‘기관’에서 추천된 목록을 복본(複本)으로 채워 넣었는데 사실 읽지도 않는 책들이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 후 2년 동안 도서 구입비로 기본 운영비의 3%를 확보하니 매년 1,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2년 동안은 정말 책만 산 것 같아요. 주말마다 서점에 나가 책도 살피고 출판사 같은 곳에서 오는 목록도 하나도 안 버리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렇게 해서 1인당 장서수가 이제 겨우 4.5권 정도 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아이들이 와서 읽을 책이 없다,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물론 아직 가끔씩 ‘아이들에게 읽히면 안 되는 책’이라고 지적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장서의 질적인 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_ 몇 년 됐죠?

**염보영** \_ 지금 3년째예요.

**사회** \_ 3년째에 5,600권이예요?



| 염보영 |



| 이강련 |

**염보영** \_ 제가 3,000권을 샀습니다. (일동 웃음)

**이강련** \_ 저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나서 여러 학교를 다녀봤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도서관 안에 참 많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청각공간, 열람공간, 학습공간…… 이런 것들을 다 그 좁은 공간에 넣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서가가 너무 조그맣지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것들로 채워놓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도서관의 모습은 아이들이 책을 빌려 가는 곳이지 머무르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머무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거나 학원에 가야 하는데…… 와서 빌려 가는 시간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인데, 아주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와 다양한 책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책도 옛날 책보다는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책들이어야 하고요. 저도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만, 지나고 보니까 서가공간이 도서관의 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로비가 넓어서 아이들이 대출할 때 줄 서 있기도 편하게 해야죠.

**이선영** \_ 도서관이란 게 1~2년 안에 마련할 것이 아닌데, 1~2년 안에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매우 강한 것 같아요. 1년 안에 모든 것을 채워놔야 한다, 받은 돈을 다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는 몰라도 1~2년 안에 모든 것이 다 마련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살림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처치가 곤란한 거예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 3년 반이 됐는데 장서가 1만 1,000권이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1년 동안 5,000권 정도를 마련했으니까 그때 이미 많이 마련한 거죠. 우리 학교는 책이 너무 많고 3년 반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뺄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증받은 도서 수백 권 이외에는 뺄 책도 별로 없거든요. 그 작업도 사실 문제예요. 서가를 산다 해도 설치할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고…… 일테면 막다른 길에서 있게 됐는데요, 처음부터 생각을 길게 해서 확장성 같은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사회** \_ 장서의 질도 문제지만 일단은 일정한 부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ㅎ교의 이 선생님 말씀은 1만 권이 넘어가니까 남녀노소 누가 들어와도 뽑아 갈 책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단 1만 권이 되기까지는 장서의 수가 중요하지 않겠는가? 1만 권 정도 되면 1인당 장서 수가 열 권도 되고 스무 권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만 권이 됐다면, 그다음에는 책의 질의 문제인데요. 책이 넘칠 때에는 뽑아서 자료실이라든가 그런 데 넣더라고요. 두 가지 경우에 책을 치우더라고요. 한 경우는 너무 많이 봐 너털너털해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책들, 그리고 다음 경우는 아예 학생들이나 교사의 손을 타지 않고 보지 않는 책들이지요. 그런 것은 뽑아내고 그 자리를 신간으로 채워 넣는 식으로 순환시키던데요, 그러려면 중학교에 채울 책이 무엇인지, 고등학교에 넣을 책이 무엇인지 그것도 살펴봐야겠죠.

**이강련** \_ 그런 건 교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이 어떤 책인지, 교사들이 무슨 책을 봐야 하는지…… 과거에는 도서관을 떠밀려 맡았기에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그저 담당교

사가 선호하는 도서목록의 책들이 많았지요. 무조건 많은 책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책은 두 권 이상 안 샀어요. 학생 수가 410명밖에 안 되니까 베스트셀러라 해도 두 권만 사고 나머지는 한 권씩 사니까 책 종류가 많아지더군요. 저는 아이들에게 추천을 받고, 도서부 아이들에게 대형서점에 가서 추천된 책을 살펴보고 또 더 좋은 책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과제를 줬어요. 제가 좋다고 해도 아이들은 안 보거든요. 아이들이 추천한 목록을 수백 권 뽑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 사이트에서 뽑고, 선생님들께 추천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갖다 놓으니까 나가요. 물론 그중에 선생님들이 공부시키려고 추천한 것은 잘 안 나가지만요. (일동 웃음)

사실 우리 학교에 처음 왔을 때 좀 놀랐어요. 교사들이 추천한 도서목록의 책이 도서관에 거의 없는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은 예고니까 과별로 추천목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서가 대체로 대학교재 수준이에요. 『무용이론』 『무용개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그걸 읽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쉬운 책을 배치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이 늘었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도서관운동을 하면서 또 학교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많이 익혔죠. 담당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염보영** \_ 선생님처럼 열의가 있어서 각종 도서목록을 비교해서 살피고, 서점 조사까지 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 다행일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더 많잖아요? 곳곳에서 나온 권장도서 목록을 필독서라고 집어넣고, 이렇게 되면 질도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여러 문제가 나오거든요. 도서관을 전담하는 사서교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늘 대하는 것이 책이다 보니까 정보가 빠르다고 할까요, 그래서 도서목록도 버리지 않고 유심히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신경 써서 고른 책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보죠. 인근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엘 갔더니 전집이 각 10권씩 있더라고요. (일동 웃음)

**이강련** \_ 요즘은 전집 사는 학교가 거의 없는데요.

**염보영** \_ 거기는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인데, 도서관이 생기면서 일단 서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에서였는지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장서의 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천천히,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그 양을 늘려야 되는데,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려다 보니 책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좋다 싶으면 전집 이만큼 그것도 복본으로 사서 들여오니 결국은 돈 낭비지요.

**이강련** \_ 과거에는 대체로 전집과 참고서가 도서관 서가를 많이 차지했지요. 잘 운영되는 도서관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전파를 해야 돼요. 연수 같은 걸 통해서 전파해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잖아요?

한편 이런 문제도 있어요. 너무 안 보는 책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봐서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그해 구입한 책의 5% 미만만 폐기해야 하거든요. 그걸 해마다 규정에 맞게 폐기했으면 되는데, 여러 해 동안 그 작업을 하지 않아 수백 권, 수천 권을 버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요. 저는 사실 전산화 작업을 하면서 옛날 참고서나 세로쓰기로 된 책들을 대량 폐기했어요.

## 양서와 악서를 '구별하는 힘'

**사회** \_ 학생들이 좋아하는 책은 주로 어떤 건가요?

**서경은** \_ 처음에는 인터넷소설 같은 베스트셀러를 많이 찾죠. 그런데 입소문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는 열람대출증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걸 다 볼 수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서 그런지 책 잘 보는 녀석이 읽은 목록을 자기들이 훑쳐서 봐요. '어, 애도 읽었네. 그러면 이거 재밌겠다.' 그런 것 있죠? 그래서 한 학년에 몇 명만 제대로 해놓으면 많이들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중학교 2학년 독서수업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는 것이었죠. 연말 쯤에 학년 초에 아이들이 읽은 목록, 여름방학에 읽은 목록, 초겨울에 읽은 목록을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확연히 달라져요. 이게 바로 교육의 힘이고 학교도서관의 힘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 거의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데 만약 학교도서관이 없었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책 고르는 능력을 쌓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자기네끼리 읽으면서 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잘 알아요. 나에게 별로 이롭지 않은 책이라는 걸 알면서도 처음에는 재미에 빠져서 읽게 되죠. 저는 그렇게 재미에 빠져서 읽는 책도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비슷했거든요. 국민학교 때 집에 가는 도중에 있던 만화 가게 앞에서 가방 들고 서서 무슨 신간이 나왔는지 매일 뚫어지게 쳐다보고 돈만 생기면 바로 만화방으로 달려가던 그런 아이였거든요. (일동 웃음) 그래서 저는 일단 만화라도 보고 활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만화를 갖다 놓았을 때 그쪽에만 빠질까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있고, 또 양서와 악서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성희** \_ 저는 신설학교만 다니다 보니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설학교는 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책을 구입해야 하잖아요? 사실 아이들은 만화나 판타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도서관대여점 같은 텔 가면 금세 구할 수 있으니까요. 상대적으로 도서관은 '좋은 책'을 알려주는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만화책을 집어넣더라도 '좋은' 만화책들을, 판타지를 넣더라도 '괜찮은' 판타지들을 골라 넣으려고 하죠. 사실 돈만 많으면 다양한 책을 고려할 수도 있을 텐데 신설학교이다 보니까 결국 책을 선별해서 구입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다양한 장서를 구비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름의 특성에 맞는 장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서경은** \_ 물론이죠. 만화를 구입할 때도 권장도서 목록 중에서 고르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학생회장에 당선되면 학교도서관에 판타지를 들여 놓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걸 받아

놓죠. 그리고는 등록을 안 해요. 받은 것은 따로 ‘이건 학생회장 아무개가 공약사업으로 기증한 거니까 보고 치워라’ 하고는 뒤요. 그러면 그걸 보다가 얼마가 지나면 스프르 빠져버리죠. 그런 것을 우리 도서관의 장서라고 들여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는 사립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내가 이 학교에 온 지 10년 혹은 20년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다’면서 고민을 하세요. 그러다 ‘그래도 도서관에 책을 사놓으면 여러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다’ 싶어서 제게 10주년이면 10만 원, 20주년이면 20만 원을 주시곤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책을 사서 ‘아무개 선생님이 기증하신 것’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내놓거든요. 해당 선생님들께는 구입 목록을 드리죠. 그러면 선생님들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가 편하시거든요. “이번 개교기념일에 20주년 근속상을 받는데, 내가 이번에 20주년이어서 너희들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지각이 있는 분(?)들께서는 거의 다 주시는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저도 우리 학교에 처음 부임했을 때 사실 많이 놀랐어요. 1940년에 만들어진 학교인데, 1964년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사서교사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한 거죠.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학교의 도서관들이 모두 부침(浮沈)을 거듭하면서 사라졌잖아요? 학교 운영자들의 생각에 따라 사서교사를 두기도 하고 안 두기도 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8월에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학교도서관에서는 세 곳이 방문도서관으로 선정됐는데, 다 사립학교예요. 어떤 분은 ‘왜 사립만 들어갔어? 주최 측의 농간 아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지요. 사서교사가 없는 국공립학교의 경우, 도서관 담당교사가 보직으로 돌아가면서 말지, 계속 도서관을 말지는 않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신입교사들을 주잖아요? 그것도 여성교사에게만. (일동 웃음)

**사회** \_ 정말 그렇다고들 하더군요. 남성교사가 맡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로 신입교사에게 준다면서요?

**서경은** \_ 예. 업무 분장(分掌)으로 나누어만 놓았다가 막판에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성희** \_ 요즘엔 원하는 분도 많아졌어요. 도서관을 맡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서경은** \_ 그런 분들은 ‘나는 출세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승진에 욕심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요.

**이강련** \_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믿는다는 말이 적격인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우리가 좋다 나쁘다 하기 이전에 아이들은 이미 다 알아요.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있다 예술고로 왔는데요, 학교 특성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문

체의 책은 안 읽어요. 책을 쓰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옛날 문구나 한자말은 안 보고요……

우리 학교에서 지난해 제일 많이 나간 것은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이었어요. 그리고 만화책 『십시일반』, 홍세화의 『썰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르다』 같은, 아무래도 선전을 많이 하는 책이 잘 나가요. 한편 인문계 학교에서는 ‘고전 시리즈’, 『전태일 평전』 같은 것도 많이 읽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한 책을 100번 이상 대출하면 베스트셀러예요. 100번 넘어가기가 어렵지요.



**사회** \_ 초등학교는 어떤가요?

**이선영** \_ 제가 사서교사로 있으면서 놀란 점은 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이 무척 강하다는 거예요. 중학교만 해도 아이들이 와서 고르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힘이 크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읽어주는 단계에서 자기가 직접 고를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그림책을 가장 많이 봐요. 그래서 그림책을 많이 사고요. 그리고 친구랑 둘이 같이 와서 책을 고르면서 그래요. “야, 이것 읽어봐, 재미있어.” 그러면 제가 옆에 가서 “재미있었니? 선생님이 골라줄게” 하면서 책을 골라주잖아요? 그럼, 가만있다가, 정작 빌릴 때는 그것 안 빌려요. (일동 웃음) 첫째, 둘째 해에는 제가 추천을 해주면 ‘선생님이 추천해준 것을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추천해준 책을 이상하게도 안 보더라고요.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직 제가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자기들 기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추천을 하면 꼭 빌려 가요. 자기들끼리 돌려 보고 그래요. “야, 그것 반납하지 마. 나 읽고 난 다음에 반납해.” 그리고 빌리러 올 때면 꼭 손잡고 오고요.

**서경은** \_ 중학교 1학년들도 그래요. 초등학교 때 몸에 익어서 그런 모양인데요, 고등학교에 가면 예약을 해버리죠.

**염보영** \_ 예약도 하긴 하는데요. 예약을 해도 순번이 잘 안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도 복본을 잘 안 사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와요. 인기 있는 책은 도서관에서 쉴 틈이 없어요.

**이강련** \_ 우리 학교는 “뭘 읽을까요?”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입시문제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기엔 시간이 없다는 거죠. 입시에 쫓기니까 그나마 교양에 도움 되는 책만이라도 읽고 싶은 거예요. 도서관에 있다 보면 그 아이가 전에 빌려 간 책들을 알 수 있거든요. 읽은 책 목록을 보면 추천하기가 좋아요. 물론 한계는 제가 책을 잘 모른다는 거지만요. (일동 웃음) 전에 젊은 선생님께서 추천한 방법인데요, 수업시간에 책을 다섯 권씩 들고 가서 설명을 해요. 읽은 것은 자세히 설명하고, 안 읽은 것은 간추린 요약글을 얘기하면 꽤 효과적이고 아이들이 꼭 보더라고요. 당장은 안 보더라도 한 달쯤 후에 와서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어요. “선생님, 전에 수업시간에 추천한 것 주세요.” 그래서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 모두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죠.

**이성희** \_ 실제로 고등학교는 교사들이 책을 많이 안 읽는 편이에요. 사실 읽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지요. 그럼에도 교사들이 책을 많이 읽고, 수업시간에 알리고 해서 더 많은 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염보영** \_ 그 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수업시간에 얘기해준 책은 꼭 와서 빌려 가고 너털너털해서 얼마 되지 않아 재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업시간 말고도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책들을 기억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책이 입수되면 제가 먼저 읽고 제 또래의 선생님들께 권해요. 두세 분에게서 좋다는 반응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쥐보는 거죠. 아이들이 보고 재미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평가 도서 같은 걸로 쓰거든요. 필독 도서목록은 어렵지 않은 책으로 할 수 있고요. 아이들은 참 백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는 한데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소스는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면 그런 정보에 목말랐던 아이들이 그 책으로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작용도 있어요. 한번은 1학년 아이들이 와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네게 이걸 어려울 것 같다” 했더니 수학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해주셨다고 꼭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동 웃음)

**서경은** \_ 맞아요. 중학생들 중에서도 꼭 『유토피아』 이런 책 빌려 가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몇 번 말리다가 “그래 갖고 가봐” 말하긴 하지만, 바로 반납하죠. (일동 웃음)

**이강련** \_ 선생님들이 도서관에 올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신경을 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선영** \_ 초등학교는 선생님들 도움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선생님들의 독서수준이 아이들이랑 너무 떨어져 있거든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고, 아이들 책은 아이들 책이라

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읽는 책을 추천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책을 골라주거나, 읽힐 만한 책을 골라달라는 선생님들을 보면 대개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분이예요. 그분들 중심으로 제가 아이들 책을 빌려드리죠. 아무래도 그런 반 아이들은 많이 읽어요.

### 사서교사 154명 임용의 의미

**사회** \_ 기자들하고 몇 번 아까 언급한 ㅇ고엘 가서 학생들이 어떤 책을 빌려 가는지, 또 반납하는지를 봤어요. 반납한 책 중에 만화책은 없더라고요. 빌려 가지 않고 도서관에서 보는 모양이죠? (일동 웃음) 그리고 어떤 책이 도서관으로 들어오는가 하고 유심히 봤더니 신문에 소개된 교양서나 인문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결국 책을 가까이하다 보면 자기 능력에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 만화 같은 것만 읽다가 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해결하려면 결국 사서교사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까부터 서경은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것이지만 말이죠. 저는 작년 연말에 학도넷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사서교사 154명이 임용된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학교도서관 운동을 하다 보면 허망할 때가 있어요. 괜히 허공에 소리를 지르는 것 같지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마다 선생님들이 수업 끝내고 서둘러 오시는 바람에 저녁은 늘 회의 중에 김밥이나 빵으로 때우곤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을 때에는 지치곤 하지요.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서교사를 438명 임용하겠다고 신청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며 그것을 제로로 깎아버렸어요. 그때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작년 9월 30일에 교육부 후문 앞에서 장대비를 맞아가면서 몇 시간이나 시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래도 154명이 살아났습니다. 또 제가 만드는 잡지에서는 긴급특집까지 꾸렸지요. 이번 일에 대한 학교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경은** \_ 어제 사서교사 모임에서 ‘154명 임용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러는 거예요.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조금은 깨달았다고나 할까?” 그랬더니 옆에 계시던 분이 이래요. “그건 희망사항이지 깨닫기는 뭘 깨달아? 관료들이 힘의 논리에 밀려서 된 거지.” 사실 전자였으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야기한 분 얘기가 더 현실적이겠지요.

그래서이겠지만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계속 충원되어야 한다는 게 우리 희망사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는 거죠. 실제로 계열별로 들어간 대학생들이 2학년이 되면 전공을 선택해야 하잖아요? 요즘 세태가 얼마나 영악한지 그런 말을 한대요. “이번에 뽑았으니까 이젠 별로 안 뽑을 거야. 그래서 선택 안 할 거야.”

**사회** \_ 아, 그래요?

**서경은** \_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을 보면 불신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지요. 사실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하기로 했는데 3년째가 되는 2005년부터 중앙정부에서는 ‘돈을 안 내려준다,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손을 놔도 저절로 굴러간다’는 식으로 사고하곤 해요. 정책 담당자들이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료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줘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이성희** \_ 사실 해방 직후에 사서교사가 284명이었잖아요? 그에 비춰보면 올해 임용되는 154명은 큰 숫자인 것 같아요. 이제 전체 학교 중의 4.3%쯤 되는 것 같은데요. 사서교사 154명에는 학교도서관이 제자리를 잡는 데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제는 앞으로의 길이 더 험난할 것 같다는 것이지요. 이제 시작이고 더 늘려야 하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요. 1만 개 학교에 도서관이 있다면 사서교사도 그 숫자만큼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기껏해야 430명 수준이니 앞으로 할 일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 \_ 말씀처럼 사서교사 154명의 임용은 출발이고 앞으로 해마다 임용을 늘려나가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가 채워져야 할 텐데요,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서경은** \_ 물론 올해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부 담당자들은 학교도서관을 그저 취업의 자리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료적인 사고방식이죠. 자신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실적을 내야 하고 그래야 그걸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성희** \_ 사실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지요. 이번에 임용되는 154명을 포함해서 전국에 사서교사가 430명쯤 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선생님이 1,500분 정도 계시죠.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 대해선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만 154명을 임용할 게 아니라 매년 교육부에서 임용을 한다면 더 좋겠지요. ‘학교도서관 진흥법’ 같은 관련법들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한층 더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_ 사서교사가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성희** \_ 법정 교원 수란 게 있는데요, 현재 확보율이 82%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사 100명이 필요한데 82명만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 한 명이 감당하는 수업시간이 많이 늘어나 있어요. 따라서 교사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거고, 또 잡무가 많아요. 당연히 법정 정원을 확보하면서 사서교사를 확충해야 하는데 그것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사서교사 증원에 대해서 일반 교과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사서교사 한 명을 충원하면 그만큼 다른 교사의 수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선결 과제는 하루빨리 법정 교원 수가 확보되는 것이예요. 그리고 제



| 서경은 |

일 좋은 것은 별도 정원이잖아요? 사서교사나 보건교사가 별도 정원으로 배치되어서 같이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 \_ 세상 모든 일이 그럴 텐데요, 어떤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제대로 하려 하고 또 인력을 확보하러 하고 계속 유지되지 않겠어요? 아까 중앙여고 사례도 보았지만, 수십 년간 애정을 가지고 거의 운동처럼 운영한 학교는 너무 잘되고 있다지 않습니까?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국공립학교 같은 데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강련** \_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정원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편하죠. 그런데, 이번에 임용된 154명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도 중요해요. s중학교 같은 경우 사서보조교사가 비정규직 교사였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열성적인 활동으로 s중학교 선생님들은 당연히 사서교사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엇그제 신청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서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도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갓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사서교사들의 연수 같은 것도 필요해요. 물론 더 큰 것은 법의 문제이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도서관이 정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회** \_ 여기 계시는 두 분 젊은 사서교사들은 사서교사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선영** \_ 지속적인 운영 지원이 제대로 되는가를 봐야 해요. 국공립학교에서는 사서든 아니든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저도 학교를 옮겨야 하는 상황인데 교감선생님께서 매우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학교 예산에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가야 하거든요.

**이성희** \_ 지금 선생님 학교에서 사서교사는 별도 정원이죠?

**이선영** \_ 저는 별도 정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나갈 경우에는 인원이 비는 거예요. 없어져버리는 거죠. 교감선생님은 제가 나가면 다른 사서교사가 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한 학교를 계속 지원해줄 수는 없지요. 또 사서교사가 한 학교에 4~5년 있음으로 해서 학교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학교에만 계속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2003년인가 도서관계획이 나왔을 때 자료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인력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계약직을 둘 것인가, 사서교사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일반 담당교사를 둘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면서 인력을 충원해서 담당교사가 지나친 업무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를 보면 계약직 교사를 둘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같이 업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사서교사나 도서관 담당교사를 두면 도서관 담당은 한 명으로 끝나는데, 비정규직 교사들이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담당교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업무와 동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계약직은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데서 오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요.

**이강련** \_ 한마디로 아이들이 선생으로 안 보는 거죠.

**이선영** \_ 실례로, 우리 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작년 9월이면 바뀔 상황이었던데요.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 언제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 ‘사서’교사인가, 사서‘교사’인가?

**이강련** \_ 또 사서교사가 수업을 맡는가 안 맡는가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나거든요. 독서교육을 맡게 되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이성희** \_ 사서교사는 여러 교과 간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담임도 맡기더라고요. 담임을 맡으면 사서교사 본연의 일을 못하게 돼요. 사서교사에게는 담임을 맡기지 말고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업을 주더라도 최소시간, 즉 예닐곱 시간 정도를 줘서 다른 교과와 통합수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방식이 적합해요. 과다 수업이 될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를 못하거든요.

**서경은** \_ 그 점은 저희로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수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저희 안에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교육부는 “수업을 해야 사서교사를 발령 내기가 쉽다”고 하더군요. 현장에서 그래야 먹힐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장해줄 건 보장해줘야 하거든요. 평균 수업시수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수업을 주고, 거기다 담임 주고, 영똥한 업무 주고 그러면 사실 못하죠. 게다가 교과서 업무까지 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희** \_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서야 한다는 거죠. 아까 사서교사의 질을 말씀하셨는데요,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에서도 협력수업이나 독서교육 과정 같은 내용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서경은** \_ 문헌정보학과에서는 요구가 없으니까 설치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학교 도서관에 대한 아무런 수요도 없었기 때문에, 인력을 키우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학교도서관 관련 교과를 개설하기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해요. 말씀하신 교과 개설은 거꾸로 현장에서 자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연륜이 되는 사서교사들이라면 “모교에 가서 우리들 연수를 거기에서 해달라고 요구해라”고 말하곤 해요. 지금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설하고 있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서교사 및 학교도서관 담당교사 연수를 계획할 때 의논하곤 하는데, 연수를 하려는 기관이 나서지 않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서초구에 있는 서울교육연수원에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어렵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도 제대로 다 못하는데, 무슨 사서교사가 거기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러더군요. (일동 웃음) 말이야 완곡하게 돌려서 했지만, 요지는 그런 거예요. 참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연수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국가의 대표도서관인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담당교사 등 비전문가들을 위한 것만 말고, 사서교사를 위해서는 외국의 앞선 것도 배울 수 있도록 고급 연수도 함께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사실 큰 문제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가 자기네 쪽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앙도서관은 문화관광부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문헌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제대로 된 교과과정으로 연수를 해서 관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도록 해보자, 그렇게 해서 관심들을 불러일으켜서 ‘학교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하는 부분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설해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자, 이렇게 생각했지요.

**사회** \_ 교육부가 절실하게 깨달아서 이번에 154명을 임용한 게 아니라 사회적 힘에 눌려서 한 것이라면, 안정적으로 이 기조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시민운동 쪽에서 더 노력해야겠지요. 또 그렇게 된다면 대학의 교육내용도 좀 바뀌겠죠. 참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아동문학 개론’ 같은 거 배우나요?

**염보영** \_ 그런 거 없어요. 대학 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배운 것은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었어요. 그때의 그 막막함이란…… 그래서 저희들끼리 다시 공부했거든요.

**이선영** \_ 대학교육이 워낙 현실과 멀기 때문에 저는 해당 교과목이 있는 것 자체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의 교수님은 그래도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이라 나름의 목적의식을 갖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 오신 교수님은 현장 경험이 전무하셨고 서지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지요. 후배들 말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대한 열의나 관심은 있었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될지 감이 전혀 없으셨다고 하더군요. 알아서 각자 공부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수업이 이뤄졌답니다. 그 점이 무척 안타깝더라고요.

**이성희** \_ 대학 교육과정도 그렇지만 1만 개가 넘는 학교에서 학교도서관을 담당하는 사서교사, 비정규직 사서,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를 위한 재교육과정과 연수가 체계적으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시도교육청뿐 아니라 사서교사 단체 차원에서도 내실 있게 담당교사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경은** \_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다만, 사서교사들을 위한 연수와 일반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구분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겠지요. 관심 정도가 다르니까요.

**이강련** \_ 제가 도서관을 꾸며놓고 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도서관에 와서 수업을 하라고 홍보했는데요, 안 오시더라고요. 영화를 틀어주고 할 때만 오고, 영화 틀어주는 건 제가 반대했어요. 교실에도 그 시설은 있으니까요. 사실 도서관 담당교사가 아닌 일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도서관 수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지 막연하거든요. 사서교사들에게 책을 이용한, 혹은 협력수업에 대한 다양한 식견들이 있다면, 그런 정보와 방법을 일반교사들에게 알려줘야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열린 수업, 그거 잘 못하거든요. 입시 진도 나가기도 바쁘고, 자료가 있어도 활용하는 방법에는 익숙지 않거든요.

**염보영** \_ 사실 제가 문헌정보학과에 간 것은 도서관이 좋아서이지 학교도서관이 좋아서는 아니었던데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학교도서관 안에서의 담당인력은 사서의 역할도 있지만 교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학교도서관은 수업과 같은 교수-학습 과정에 협력을 해주고, 교수-학습 센터로 활용되어야만 생명을 유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라는 것이고요.

우리 학교도 처음에 굉장한 기대가 있었답니다. '이제는 우리도 활용수업을 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서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활용수업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각 선생님마다, 각 교과마다 예시안을 다 짜드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지도안도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했어요. 몇몇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전혀 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같이 수업을 했어요. 해당 단원을 진행할 때 자료용 목록도 뽑아드리고, 아이들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지도 만들어드리고 그러면서요. 첫해에는 대강 그렇게 했는데, 둘째 해가 되니까 한 번 해본 선생님들이 먼저 오시더라고요. 작년처럼 그렇게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사실 인력 문제를 논할 때 사서교사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말들이, 어차피 활용수업도 안 되는데 굳이 사서교사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된다는 법도 없어요, 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꾸준히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저희가 대학에서 배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도 한계를 많이 느끼죠. 그래서 첫해에는 겨울방학에 발령 동기들끼리 스터디를 했어요. 정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의 연수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사회** \_ 초등학교가 됐건 어디가 됐건 아동문학의 역사나 계보라도 알아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서를 하면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또 사서교사로 임용이 되어서 현장에서 확실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또 '이거 별것 아니구나' 하고 애써 사서교사를 두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염보영** \_ 그런 부담감도 사실 상당한 것 같아요.

**이선영** \_ 사실 저는 갑자기 티오(TO)가 나면서 초등에 가느냐, 중등에 가느냐 하는 기로에 섰었어요.

전에 실습도 고등학교에서 했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는 처음이었고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가 봤더니 우선 놀랐던 것이 초등학교인데도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는 책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3~4년 있으면서 보니까 정말 많이 출판되더라고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 너무 많고 하니까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자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아지는 책을 도저히 제가 따라 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회** \_ 창비아동문고도 많아요? (일동 웃음)

**이선영** \_ 치우치지 않고 균등하게 있어요. (일동 웃음)

### 도서관 담당교사한테 사서교사의 결과를 요구하는 구조

**사회** \_ 제가 학도넷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신학기만 되면 학도넷으로 갑자기 도서관 책임을 맡게 된 교사들의 전화가 무척 많이 옵니다. 대부분은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 현장의 교사보다는 학부모이면서 도서관 운동을 하는 활동가를 소개해드리곤 합니다. 그분들을 통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자료나 마음자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에서는 사서교사가 대부분 배치되어 있지 않으면서 일반 교사들이 갑자기 책임을 맡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 교사들은 그런 ‘난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할까요?

**이강련** \_ 이번 학교에 와서 저는 무조건 도서관을 맡겠다고 썼어요. 전임자가 계속 맡겠다고 하면 어찌나 하는 생각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선생님은 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일동 웃음)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첫 발령을 받아 왔는데, 도서관을 맡기더라고요. 도서관이 1층 구석에 있는데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온종일 지키고 있어야 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만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초임 발령으로 도서관을 어떻게 꾸려갈지 막막하고 겁나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간단한 일이지만 그에게는 큰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책 신청해야죠, 교과서 말아야죠, 공문도 보내야 하죠……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던 차에 제가 맡겠다고 하니까 저를 너무 좋아할 수밖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 1년간 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 도서관이 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사실 저는 제 과목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서 자리를 지키고 싶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아이들 손잡고 점심시간에 와서 무슨 책을 읽을 것인지 책에 대한 설명도 하고 독서 지도도 하고 싶어요.

**이성희** \_ 정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학교도서관 관련 사이트를 찾거나 전임자나 교육청



| 한기호 |

에 문의를 하면 좋습니다. 주위에 사서교사가 있으면 그분에게 도움을 청해도 좋고요. 처음 맡았다고 겁먹지 말고 주변의 정보원을 잘 이용하면 학교도서관이 즐거운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좋은 것은 이런 점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학교에서 학생과 같은 곳은 학생들에게 ‘하지 마라, 이러지 마라’ 그러는데 학교도서관에서는 ‘책을 읽자, 놀아보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담당교사들이 겁먹지 말고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함께하면 좋겠어요. 제 입장도 제일 좋은 것은 사서교사가 오는 것이고요, 사서교사가 전원 배치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라도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이 아이들이 책을 다양하게 읽고, 거기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선영** \_ 경기도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된 선생님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와서 보니 학교 업무 중에 남은 게 도서관이었다니까. 그래서 그걸 맡았다는데요, 도서관 업무를 한(恨)으로 시작하신 거죠. (일동 웃음) ‘내가 타지에 와서 분위기 적응도 안 됐는데 나를 이런 곳에 처박아놓다니……’ 더군다나 학교가 공교여서 아이들도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책을 조금이라도 읽히려 하면 자장면이라도 사줘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서교사라고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그 선생님 얘길 듣고 나서 같은 업무를 맡은 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날 거의 서너 시간 일대일 단독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강의를 라벨 붙이기부터 해야 했어요. 그 정도로 기본이 없었으니까요. 연수를 하신다니까 창고에 있던 책 몇 권을 가져오셨는데요, ‘정말 이런 책을 누가 읽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한 책이더라고요. 라벨 붙이기부터 입력 작업까지 하나하나 일일이 같이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이 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제일 중요한 점은 스스로가 원해서 도서관을 시작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원하시면 그 전에 직무연수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미리 생각하고 시작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사회** \_ 그러면 앞으로 초보자들을 이선영 선생님께 보낼까요? (일동 웃음)

**이선영** \_ 저는 워낙 외지에 있어서 오시기 힘들 거예요. (일동 웃음)

**서경은** \_ 저는 도서관을 하면서도 1997년부터 국어수업을 맡았거든요. 교생실습을 가서 ‘학교도서관을 찾아서’란 단원을 수업해보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수업을 하라니까 제가 반대를 많이 했죠. 국어과 출신 교장선생님의 말씀을 어길 수도 없고 학교 사정도 말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찌어찌 수업을 맡았는데, 그때 교무부장을 맡은 선생님의 충고가 기억에 남아요. “서 선생, 한 어깨에 두 짐을 짊어 못 지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그런데 지금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을 보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의 윗분들도 도서관을 담당교사에

게 맡기면서도 사서교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요구하지않습니까? 그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국어수업을 하다가도 늘 이렇게 자위를 하죠. '나는 전공이 아니잖아? 난 사서교사거든.' 그런 배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이 학교사회에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승진에 욕심 가지면 안 되고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성희** \_ 학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승진구조와 상관이 없잖아요? 도서관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비담 임을 신청해야 하고요, 담임을 못 맡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도서관을 맡는다 하더라도 3년 이상 안 맡으려고 해요. 제가 도서관만 7년째 맡았는데,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3년 이상 맡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에 불이익을 당해 원하는 지역으로 학교를 못 옮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점수에서 밀리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승진의 꿈이 있다면 아예 맡으면 안 돼요. 아직은 한직(閑職)이잖아요? 도서관을 맡는 분들은 나름대로 꿈이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하시는 건데 도서관이 승진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 도서관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비법

**사회** \_ 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지금까지 도서관의 시설, 자료, 사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학생이 와서 책을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책을 읽는 가치를 스스로 깨우쳐야 할 텐데요, 도서관에 학생을 끌어들이려고 어떤 정책을 쓰시나요?

**염보영** \_ 일단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두 시간 정도 도서관 이용교육을 해요. 도서관 이용교육을 하면서 좀 부풀리죠. 재미있는 것도 많고 냉난방 확실하게 되고, 교내에서 제일 먼저 에어컨이랑 온풍기를 켜는 곳은 교장실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재미있는 책 얘기를 해주고, 점심시간에 오면 만화도 공짜로 실컷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유인을 하고요. 그래도 오는 애들만 오고 안 오는 아이들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과 협력을 해요. 올해는 국어과와 협력을 했는데요, 수업시간에 태도점수 들어가는 것을 국어선생님들이 도서관으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온 흔적이 있으면 태도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빌려 가는 애들도 있지만 그 아무 책이라도 골라야 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서가를 둘러봐야 하고 그러다 보면 눈에 띄는 책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런 이유로 '태도점수'라는 교육지책을 쓰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오는 횟수가 점점 많이 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소식지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행사나 책 소식을 홍보하고요, 그럴 때마다 자잘한 상품도 주고 도서관에서 축제도 하고 그래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수치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도서관에 눈에 익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늘어나는 걸 보면 효과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선영** \_ 제 경우엔, 첫째에는 전교의 어린이들이 도서관에 다 와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켜보니까 쉬는 시간에도 공을 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쉬는 시간이건 방과 후건 바깥에서 공을 차는 게 너무 좋은 아이들이지요. 그 아이들의 그 시간을 빼앗아서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어라,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저학년 때는 엄마가 “집에 언제 올래?” 할 때까지 도서관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책이랑 멀어지거든요. 고학년용 권장도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추천을 해줘도 그래요. 물론 선생님 말씀처럼 나중에 그 책을 보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요, 그만큼 중학교에 올라간다는 압박이 크게 작용하지요.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용 입시책 많잖아요? ‘초등 4학년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책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때 기반을 닦지 못하면 중학교부터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볼 때쯤이면 5~6학년 아이들은 학교 옆 보습학원에서 10~11시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곤 부모님들이 안쓰럽다고 하시면서 ‘책을 읽기보다는 차라리 운동장에 가서 놀아라’ 하시는 거예요.

**염보영** \_ 사서교사로서 가장 좋은 것은 첫째 제가 좋아하는 책을 마음껏 읽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학생과 교사로서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나 가정환경 같은 거 사실 저는 모르거든요. 그냥 일대일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교의 말썽쟁이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교의 ‘왕따’들을 다 알게 되더라고요. 처음엔 난감했는데, 그런 아이들하고 교감을 쌓고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때로는 권해주기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다 보니 그 친구의 친구하고도 친해지고…… 그렇게 아이들이 더 많이 오더라고요. 결국 친절한 사서선생님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서관에 있으면 친절해지기가 쉽지 않아서 문제지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벽찰 때가 많아서 야단도 많이 치게 되고, 아마 제가 무서워서 도서관에 안 오는 아이들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일동 웃음)

**이강련** \_ 사실은 우리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입시제도의 변화 탓이 더 큰 게 아닌가 해요. 수시나 논술에 독서가 좋다, 그리고 언어는 이제는 문제집으로는 안 된다 그런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책을 읽으면 언어 점수를 높일 수 있어요?”라고 묻는 아이들이 많지요. 그리고 수시를 쓰겠다는 욕망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기초지식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와요. 그러니 입시영향이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거기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소개하고 안내판을 붙이고 독서신문, 축제, 뭐 이런 것을 하니깐 어떤 때는 정말 너무 많이 와서…… 지난 학교에서는 시험 끝나고 나서 300~400명씩 오니까 점심시간에 주로 대출하다 보면 그다음 수업시간에 지쳐서 들어가곤 했어요.

**사회** \_ 도서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도 안 되나요?

**이강련** \_ 아이들이 도와줘도 힘들어요.

**이성희** \_ 사실 학교에서 아이들이 갈 만한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매점, 운동장, 도서관……

**이강련** \_ 그 학교는 개교한 지 20년 정도 됐는데요, 건물이 그만큼 낡았어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도서관 색상을 보라색 톤으로 했는데 예쁘더군요. (일동 웃음) 서가도 그 계열로 짝 바꿨거든요.

## 학교도서관의 임무

**이성희** \_ 학교도서관에 아무리 좋은 책이 있어도 아이들이 와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학교도서관 이용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함께하지 않는 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는 교과 교사들과 연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책읽기를 입시와 연결시킬 때는 왜곡의 가능성이 커요. 독서 취향이 편향되곤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이들의 독서습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학교가 외져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은 입시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입시에 맞춘 책보다는 다양한 책을 주로 읽어요. 작년 10월 19일에 개관을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3,000권 정도 대출을 했더라고요. 교과와 연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영향도 있고요, 저자와의 대화, 독서캠프 등 다양한 독서관련 행사를 꾸준히 진행한 영향도 있습니다.

**사회** \_ 울산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쓴 글을 보니까 학생들을 모신다는 느낌이 들던데요. ‘작가와 대화’ 행사를 치르면서 60명의 자발적 신청자들에게 일일이 초청장을 발송하고 출판사의 도움을 얻어 작가의 책을 한 권씩 나눠줘 미리 읽게 했습니다. 그러니 작가와의 대화는 생산적인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단 한 차례의 경험으로도 아이들은 대단한 감동을 받아 마치 인생이 바뀐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서경은** \_ 어제 사서교사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모아보면요, 먼저 도서관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점심시간에만 열려 있을 게 아니라 일과가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늘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서관은 학교에서 유일무이한 서비스 기관이다. 우리가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말을 하지만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걸 하기 위해서 참교육운동도 하지만 도서관에서는 정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사건 아이들이건 똑같거든요. 교사들도 책을 빌려 갔다가 연체를 하면 학교도서관 웹페이지에 자기 이름이 빨갱게 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사람은 누구예요? 왜 책을 반납 안 했어요?” 한다고요. 그러면 “아, 선생님이야” 하는데, 아이들은 이런 말도 해요. “왜 선생님은 대출기간이 60일이고 우리는 2주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까

지 변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바빠서 너희들처럼 빨리 책을 읽을 수 없거든. 그러니 너희들이 좀 이해 해줘라” 하고 이야기도 하는 학교 내에서 유일한 민주적 서비스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는 풍부한 자료죠.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인쇄매체, 이런 것뿐 아니라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매체, 아이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자재, 스캐너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등이 마련돼 있어야 하죠. 요즘에도 학교도서관에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이 친절이에요. 아까 이강련 선생님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주요 색상을 보라색 톤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과 연관되는 거겠지요. 마산여고에서 사서교사로 근무하다 이화여대에서 오랫동안 강의하신 김세익 선생이 1960년대에 쓴 글에도 “사서교사에게는 심미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요.

다섯 번째는 친절이죠. 정말 친절이 제일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서교사 꼴 보기 싫어서 도서관에 안 온다는 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다섯 가지를 다 하려면 도서관의 전담사서 플러스 1인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어느 길로 가든 이 길로 도착하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웃었거든요. (일동 웃음)

**이성희** \_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유일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행정조직과 공간은 주로 학생들을 통제하는 게 자기의 역할이지요. 하지만 학교도서관은 달라요.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 바로 학교도서관입니다.

**이강련** \_ 어떤 도서관은 엄격한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이……

**서경은** \_ 그것은 친절이 부족한 것이죠. (일동 웃음)

**이성희** \_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의미 있는 기사가 실렸더군요. 사회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교육이 뽑혔더라고요. 학교도서관은 그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 강남에 있건 시골 벽지에 있건 학교도서관에는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자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보리적인 측면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학교도서관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효한 공간이지요.

**사회** \_ 아까 말한 ㅎ고 사서교사가 “우리 학교 아이들은 복 받은 아이들”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학교에서 그렇게 정성을 다한다는 거죠. 심지어 매점에 갔더니 고급 시사잡지가 놓여 있어요. 안 없어지냐고 했더니 없어진다고 해요. 그렇긴 해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게 낫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그 학교를 두고 말들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거칠다고요. 초창기에는 도서관의 복사기가 날마다 고장이 났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합니다. 책을 제대로 읽으면 아이들이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 공공재산을 제 것처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참, 아까 필독도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얘길 해보죠. 그게 꼭 필요한 건가요, 어떤가요?

## 필독도서의 명과 암

**염보영** \_ 저 같은 경우는 ‘필독’이라는 말은 안 쓰고 ‘권장’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사립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 도서관에는 구 맞춤법 도서, 세로쓰기 도서, 원본이 아닌 복사한 도서 등이 무성했어요. 물론 도서관이 있었다는 게 어디냐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갱지 앞뒤에 빼곡히 들어찬 100권이 넘는 필독도서 목록은 너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저로서도 이걸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제가 읽어본 책들 중에서 어렵지 않은 책들로 선정해서 권장을 해줘요.

그런데 저도 사실 뽑다 보면 100권 정도 되더라고요. 수가 너무 많아 줄이려고 해도 공통으로 뽑고 교과별로도 뽑다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다 읽지 말고 딱 스무 권만 읽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 선정을 할 때는 쉽고 재미있는 책,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책으로 구성해요. 그런 데에 도움을 주는 목록이라면 가치가 있겠지만, 가끔 보면 목록 자체가 상업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필독이라는 말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거든요.

**이선영** \_ 사실 한 학교 내에서 ‘이 책을 읽어보자’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교육청이나 교육부 또는 외부의 각종 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할 때는 꼭 문제가 생겨요.

**서경은** \_ 각 학교가 위치한 지역도 다르고 구성원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목록을 내려 보내는지? 필독도서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업데이트도 안 되는 그런 자료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아이들에게 그걸 들이밀면서……

**염보영** \_ 언젠가 “아무리 목록을 잘 뽑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교사가 아이들에게 읽고 싶은 책인지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은 아닌 것 같다”는 선배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게 마음에 와 닿았거든요. 아이들이 권하는 책들도 서로서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설령 판타지 목록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이성희** \_ 말씀하신 대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작은 단위에서 교사모임이나 학교 단위에서 선정하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연령, 중·고 또는 일반계와 실업계, 예고에서 아이들에게 맞는 책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지역 학교도서관 담당교사들의 모임에서 학생들이 권하는 도서목록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인천의 모 학교에는 학생들 사이에 ‘권장도서 추천단’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고 1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책을 권하거든요.



| 이선영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교사가 권하는 것도 많이 읽지만 또래 아이들이 권하는 것도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 이런 도서목록들이 곳곳에서 많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나오고, 지역에서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와서, 하나의 권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 권장도서 목록이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책을 읽는 교사나 학생들의 모임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사회** \_ 제가 어느 글에도 썼는데요. 한 언론사가 개학이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에 갑자기 전화를 해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들이 보름 동안 읽을 만한 책을 세 권씩만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자신이 없어서 한 중학교 선생님에게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독서운동을 매우 열심히 하신 분인데도 막막해 하시더군요. 얼굴도 모르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읽을 만한 책을 권하라고 하니 까 그냥 막막해 해요. 하지만 당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면 책 목록이 꼭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관심·취향·독서이력을 다 알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작년 초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데는 도서목록을 만들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강제로' 읽혀야 한다는 발상까지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이어져서 요즘은 독서능력인증제나 독서이력철마저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강련** \_ 저는 국어교사로 독서 지도를 계속 해왔고, 과거에는 교육청에서 필독서를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는 것을 숙제로 내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5년 전인가 겪은 일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독후감을 냈는데, 한 반 40명 중에 18명이 똑같은 글이더라고요. 앞뒤만 틀리고 가운데는 똑같은 거예요. 그때 반성을 많이 했고,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렇게 안 내줬죠.

그리고 또 하나 오류를 범한 것이, 윤독(輪讀)도서 목록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입시 관련 목적을 달성할까 싶어서 저도 『난쏘공』 『아Q정전』…… 뭐 이런 책들을 40권씩 사다 봤어요. 그리고 우선 우리 반부터 막 뿌렸지요. 다 나눠 주고 읽고 써 와라 했어요. 뭐 선생이 시키니까 쓰겠죠. 그런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난쏘공』을 읽은 아이가 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는 아이가 열 명도 안 돼요. 그 책은 그렇게 만만한 책이 아닌 거죠. 『아Q정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강요하면 아이는 거기에 질려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책을 안 읽게 됩니다. 요약된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베껴 쓰지요. 그때 제가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 윤독도서가 아직도 그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고,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그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말하자면 개인의 욕망이나…… 나는 이런 걸 인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몇몇 도시에서는 윤독도서 구입이 유행이에요. 실적 쌓고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선영** \_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복본을 얼마나 구입할지에 관한 건데, 권장도서나 필독도서를 연간 운영계획서에 첨부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으레 여쭙보시는 것이 “이 학교는 이런 필독도서나 권장도서를 몇 권이나 구비하고 있습니까?”예요. 저는 첫째에 세 권씩을 샀고, 다음

해에는 고민 끝에 두 권씩을 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도서에서 권장도서를 뽑거든요. 중고등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의 책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가령, 동물에 대한 주제를 가진 60~70권의 책이 있는데 굳이 똑같은 책을 30~40권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많은 책 중에서 자기가 좋은 책을 뽑아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도서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질문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이 학교는 이렇까? 잘된다는 학교라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도서관 활용수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는 사실 제대로 할 수 없거든요. 1년에 한두 번 시도하는 것이지만 그 수업을 받은 아이들이 크면 훨씬 달라지겠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100선, 1000선 식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어서 으레 방학 때면 나오는 도서목록에 기가 죽어서 책 읽기를 피한 사람 중의 하나였어요. 거길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가 위인전이었잖아요? 이순신부터 시작해서 유관순,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거 말이지요.

**이강련** \_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문제지요. 중학교에 다니는 제 딸도 필독서 목록을 갖고 오는 데, 그걸 보면 예전과 똑같아요.

### 독서토론운동의 가능성과 어려움

**사회** \_ 제가 『청소년출판』을 내면서 독서교육에 대한 방향을 생각하느라고 나라별 실태가 어떤지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출판하는 친구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까지 서울에 있다가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기에 그 녀석한테 한국과 영국의 차이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서울에서는 선생님이 읽고서 독후감을 써 내라고 한대요. 그래서 독후감을 써 내면 그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일동 웃음) 그런데 영국에서는 뭘 읽으라고 하지 않고 도서관에 데려다 놓고 그냥 읽으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나면 선생님과 토론을 한다는 거죠. 토론을 하다 보면 선생님과 자꾸 싸우게 되는데, 이 아이 말이 재미있어요. “근데 있잖아요, 선생님과 많이 싸울수록 점수는 좋아요.” 선생님이 오히려 아이의 반대편에 서서 토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사회에서도 독서토론운동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가요?

**이성희** \_ 인천에서 동아리별·학년별로 나눠서 독서토론을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실제로 독서토론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변해야 하고 수업내용이 줄어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독서토론 모형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토론 모형은 많이 있는데요, 축적된 모형이 없다 보니 대학에서 세미나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세미나하고 독서토론하고는 달라야 하잖아요? 대학에서는 소규모 토론이 가능하지만 학급에서는 소규모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전체 토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의 틀을 개발해 현장에 맞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독서토론대회니 독서논술대회니 하는 사교육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문제예요. 독서가 입시와 연관 될 때에는 약보다는 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국가 차원의 획일적인 필독도서나 권장도서 목록이 해악이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변종이 아닐까 싶어요.

**사회** \_ 요즘 비디오수업도 많이 하니까 토론하는 것을 비디오로 찍고, 그중에서 바람직한 모델이 있으면 참고해본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그건 어떤가요?

**이강련** \_ 사실 독서란 좋은 것이잖아요? 독서토론 중심 교육은 과거의 지식 암기식 입시 중심에서 더 심화된 것인데, 문제는 입시시장에서 먼저 시행되고 학교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학교에서 토론식 독서교육이 제대로 된다면 밖에 안 나가도 되겠지요. 하지만, 아직 학교는 수능식 수업이 중심이고, 독서토론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한 독서토론 수업을 제대로 가르칠 선생님도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예요. 교과서 공부와 수능 문제풀이 공부, 거기다 독서토론까지…… 그나마 학원에서는 배우는 독서토론 수업도 짧은 시간에 효과를 내주어야 하니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독서교육이 왜곡될 수밖에요.

**이성희** \_ 교과별 과제토론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사회과·과학과·미술과 등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필요한 과제를 주고,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곧 책과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재구성해서 발표하는 과정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종의 학교도서관 협력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염보영** \_ 갑자기 독서가 너무 좋다고들 하니 책을 거의 안 읽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걸 당연하다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요. 독서라는 것은 결국은 텍스트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내는 거잖아요? 그렇다 치면 문학뿐 아니라 인문과학도 읽어야 하고 사회과학도 읽어야 하죠.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가 교육과정 안에 제대로 녹아들어서 수업으로 발현되어 평가도 그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서관 활용수업이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된 수행평가 아닐까요? 학교도서관의 업무를 독서와 활용수업으로 크게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 그 두 가지는 잘 섞여야 하는 것 같아요. 독서토론도 그렇게 독서와 교육과정이 적절히 맞물려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 \_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요. 사실 시민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에는 학부모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이 안 그래도 한계가 있고, 사서 교사들이 계시고 잘해온 것도 있지만 아예 관심이 없다거나 또는 학교 현장이 아무래도 CEO가 바뀌면, 즉 교장의 의식이 바뀌면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교장선생님이 계신 곳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도 열심히 참가하고 학교도서관에도 많이 가보고 해서 뭔가 좀 더 얘기를 하자는 운동도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8고의 경우 지역 공공도서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책을 많이 빌려 가고,



| 이성희 |

또 활용하다 보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공도서관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학교도서관도 일정한 의미에서는 지역별 연계를 통해서 학교도서관의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영** \_ 경기도 사서교사들은 대부분 반대해요. 왜냐하면, 아까 확일적이라는 게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경기도 어느 지역의 한 학교도서관이 지역도서관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돌고 나니까, 그게 모델이 돼서…… 또 예산을 타낼 때 참고하는 네 가지 정도의 모델이 있는데요, 그중에 네 번째가 지역도서관이거든요. 사실 지역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을 그냥 학교도서관에 위임해서는 곤란하죠. 당연히 지역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세울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게 전제가 돼야 해요. 정말 상황이 어려운 군소지역 같은 데라면 모를까, 모든 학교도서관을 지역도서관화한다면 저는 결국 둘 다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금세 생각해봐도 인력, 공간, 자금 등 거의 모든 문제가 생겨요.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과 성인을 위한 책을 같이 구입한다? 쉽지 않지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럴듯한 모델이니까 다들 해봐라 하는 식은 안된다는 겁니다.

**사회** \_ 초등학교는 사정이 그렇군요. 고등학교는 어떤가요?

**이강련** \_ 전에 근무하던 곳의 옆 학교가 도서관 리모델링 계획에서 지역민들에게도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명분으로 1억인가를 따서 2층에 크게 도서관을 지었다고 해서 가봤어요. 정문에서 한참 들어와야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의 2층에 도서관을 꾸며놓았더군요. 담당자에게 지역민들이 얼마나 오냐고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두 분이 오면 많이 오는 거래요.

**염보영** \_ 좋은 말이기는 한데 지향점은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지금으론 학부모들을 위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여력이 없다고 해야 할 겁니다.

**이선영** \_ 우리 학교에는 상주제도가 있어요. 그 학부모들이 이용하시는 거야 별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민까지 끌어들이는 건 쉽지 않아요.

**이성희** \_ 지금 부천에서는 작은 도서관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각 지역에 지역민을 위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학교도서관 이용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생·교사·학부모잖아요? 학부모도 지역민에 포함되어 있긴 하죠. 그러나 이선영 선생님 말씀처럼 인력과 공간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동에 맞추어서 아파트 주민을 위한 지역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특성화된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은** \_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은 설립 목적부터 엄연히 다르고, 학생들의 학습권은 보장해줘야 하잖아요? 오후 4~6시까지의 확보해줘야 하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면 지역민에게 개방한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서비스를 해줄 수 있겠어요? 물론 '정부에서 돈 1억만 받고 가능하면 지역민들 안 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일동 웃음) 그런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 하고요, 솔직히 정책 입안자들이야 실적이죠, 몇 학교가 개방하겠다고 하겠지만 진지하게 이용을 하려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선영** \_ 학교도서관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도서관은 멀티미디어 도서관을 해봐라, 그리고 어떤 도서관은 지역도서관을 활성화해서 아이들과 학부모, 혹은 지역민이 같이 와서 책을 읽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봐라, 그리고 어떤 데는 컴퓨터는 빼버리고 바닥에 누워서 책만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어떤 도서관은 수업이 녹아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봐라, 이렇게 특성 있게 개발하면 오히려 나왔을 텐데, 교실 세 칸에 모든 것을 몰아넣어서 1~2년 안에 모든 것을 보이려다 보니까 괴물이 되는 거죠.

**이성희** \_ 그런 경우는 있어요. 강원도 모 학교에서 시도 중인데요, 마을의 이장회의를 학교도서관에서 한다더라고요. 전교생이 68명이고 교사가 열 명인 작은 학교인데요, 학교도서관 개관식에 이장님들이 오셔서 학교도서관이 마을에서 제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니 마을 행사에 자주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 \_ 획일적인 것보다 지역에 맞게 해야 되겠죠. 또 역할모델이 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든다면 그것을 참조해 차차 확대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빠뜨린 이야기라든가 학교도서관의 비전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이강련** \_ 저는 과거보다는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독서와 독서토론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강화될 때, 이른바 '교육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받침의 중심은 도서관이고, 도서관 담당교사나 사서교사가 열린 생각으로 바꾸어가면 분명히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서경은** \_ 저는 학창시절에 학교도서관을 경험한 세대에 희망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연수엘 갔다가 매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어떤 분에게 "현재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경험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교감, 교장이나 관리자, 경영자로 가시면 낫겠죠?" 했더니 한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도서관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도 관리자로 가기 위해 점수를 탄다든지 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좋지 않은 시류에 휩쓸려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학교도서관운동을 했던 분이라도 승진을 목적으로 가다 보면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학교 경영자들과 같은 생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서관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은 법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강제적인 입법

(立法)이라든지 그런 길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2006년 현재 우리가 154명을 임용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은 굉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런 것은 이미 1950~60년대에도 시행되었던 것들이지요. 심지어 1965년 미국의 시찰단이 우리나라에 와서는 “한국의 학교도서관은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성공해서 다른 나라의 모델이 된다” 하고 감탄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9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어땠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 \_ 경력이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도서관이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아이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지 사실은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을 겪었어요. 선생님 자녀 중에 우리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독서축제 행사를 끝내고 힘든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아이의 일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선생님, 진짜 큰일 났어요.” “왜요?” “우리 집 아이가 일기를 썼는데 일기 제목이 ‘나는 죽고 싶다’예요.” 1학년짜리 아이였거든요. 엄마가 너무 놀라서 일기를 읽는데, “오늘로서 독서축제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일동 웃음) 이렇게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게 월요일이었거든요. 독서축제 기간이 끝나고, 피로했던 주말이 지나가고 월요일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행사가 무슨 보람이 있을 것인가, 내년에 이런 것을 또 해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학년짜리 아이가 그런 일기를 썼다는 얘길 듣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아이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사서교사 154명이나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작은 싹인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 기로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염보영** \_ 저는 학교도서관에 있으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이런 학교도서관이 있었다면 뭔가 한자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일동 웃음) 좋은 책도 너무 많고,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환경인데……

저는 지금 상황이 한 발은 내밀었지만 두 번째 발을 내밀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한 걸음 나가는 것보다 뒤로 빠지는 것이 쉬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일단 한 발을 내디뎠으니까 힘을 합쳐서 같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수의 사서교사로서 가시밭길처럼 험한 길을 헤쳐 나가다 보니 힘들고 고생스러운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과연 이 길이 괜찮을까, 내가 죽기 전에 사서교사들이 마음 놓고 근무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지만, 학교도서관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도서관을 즐기는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좋은 일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성희** \_ 학교도서관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요즘 교육의 평등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도서관만큼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해줄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학교도서관을 통

해서 자유로운 삶과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오래된 미래'는 바로 학교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_ 서경은·이성희 두 선생님은 안면이 있었지만 세 분 선생님은 오늘 처음 뵙잖아요? 좌담 초입 때는 좀 서먹서먹했지만 몇 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근해지고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학도넷 운영위를 열 때는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 늘 몸은 지치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마음만은 너무나 행복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참 좋은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때처럼 피곤한 것은 아니지만요. (일동 웃음) 오늘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학교도서관은 학교에서 유일하게 베푸는 곳이고, 또 그런 곳에서 베푸는 일을 하는 분들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제게 전달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시간 동안 매우 즐거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